바이오스펙트럼, 주름개선 화장품원료 효능 인증

병풀(Centella Asiatica) 추출물에 포함돼 있는 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의 주름개선 효능이 입증됐다.

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덕훈)은 병풀에서 추출한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원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더마프로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바이오스펙트럼 부설 바이오스펙트럼 생명과학연구소(Biospectrum Life Science Institute)는 아시아티코사이드에 의한 주름개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대해 2건의 특허등록이 결정돼 상업화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시아티코사이드는 병풀에서 추출된 천연물로서 화상 및 창상으로 인한 손상을 보호하거나 치유속도를 향상시켜 피부질환에 널리 이용돼 왔으며, 1990년 연구된 약리기전은 손상된 피부세포에서 콜라겐을 비롯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생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상 피부세포에서의 주름개선 효과인 콜라게네이즈 활성 억제효과, 콜라겐 생합성 촉진효과와 세포증식효과 등이 유도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화학저널 2008/05/2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